

광양시, 최초 통합행정 모바일 앱 ‘MY광양’ 정식 오픈

6개월간 개발... 1달 시범운영
흘어진 행정서비스 한 곳에서
27개 기능 탑재한 종합 플랫폼
2026년까지 기능 고도화 추진

전라남도 광양시가 22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MY광양’은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시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웹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앱을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했다.

실생활에 밀착된 기능을 대폭 탑재한 데 그치지 않고, 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접수된 30건의 오류

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앱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MY광양’ 출시로 생긴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단일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행정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전까지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청년꿈터 등 여러 사이트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으로 ‘MY광양’ 앱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사이트를 별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6개 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해당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에 한함),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사이트와도 연계해 행정정보의 공유도 가능해졌다.

‘MY광양’ 앱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실시간 1:1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시설 대관, 문화강좌 신청, 체육시설 예약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앱에서 통합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무료법률상담 예약’도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역시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결제할 수 있다.

‘MY광양’ 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27개의 주요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복지정책, 생활정보, 시정 참여, 민원 상담 등 광양시의 핵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점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복지정책 검색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 발급 △긴급복지 SOS 신청 △소상공인 지원 △읍면동 소식 △날씨 정보

△버스 정보 △병원·약국 정보 △재난 정보 알림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제’를 도입, 봉사활동, 시정 홍보, 수상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별로 앱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MY광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이광양’ 또는 ‘MY광양’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용 관련 문의는 광양시청 감동시대추진단(061-797-4766)으로 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바일 앱 ‘MY광양’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합행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 광양을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이마트~연향2지구 도로 확장 완료 순천시, 보행자 안전·교통흐름 개선

전라남도 순천시는 이마트 풍덕점에서 구암지하차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암원길 일원의 도로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전면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구간은 차량 교행이 어려워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근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존 왕복 1차로 도로를 2차로로 확장(연장 368m, 폭 12m)하고 보도와 안전시설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차량 흐름의 원활함을 확보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4일 ‘작은 음악회’ 개최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전라남도 고흥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야외 공연장에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봄·가을에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기획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통기타 가수 한승기를 비롯한 5개 팀이 출연해, 가요, 트로트,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수령 40~50년 된 편백나무와 전국 최대 규모(417ha)의 편백 숲을 자랑하는 전남의 대표 산림휴양시설이다.

이곳에는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노르딕 워킹 코스를 비롯해 8.4km의 숲길이 조성돼 있으며, 테라피센터 수치유실에서는 고흥만의 특징인 3색 당(유자·편백·석류당)을 운영하고 있어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9일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이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척수장애인협회 낚시대회 성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는 지난 19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낚시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척수장애인협회는 지역 척수장애인을 위한 사회활동과 권익옹호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낚시 대회는 개회식, 바다낚시, 경품 추첨,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 대회 1위는 43cm 양태를 잡은 회원이 차지했다.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꼈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척수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장성군에서 열린 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양궁 종목 메달 11개, 보치아 종목 메달 1개를 따내며 값진 성과를 내기도 했다.

척수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관계자는 “낚시대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100명 모집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만족도 제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성인 80명, 중고등학생 20명 등 총 100명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 관련자나 가족은 제외된다.

시민평가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개 회사(여수여객, 동양교통, 오동운수) 62개 노선 중 회사별로 2회씩 월 6회 승차해 운전자 태도, 준법 운행, 차량 관리 등 3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암행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1회당 실비 1만원이 지급되며, 학생은 실비 5000원과 봉사활동 1시간이 지급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교통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061-659-412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오늘부터 그린’ 운영 31일부터 6월7일까지 총 4회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4회차에 걸쳐 순천만국가정원과 지역 내 개방정원을 연계해 도시와 자연, 사람과 정원을 잇는 여행 프로그램 ‘오늘부터 그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그린’은 정원을 ‘보는’ 관공에서 벗어나 사유하고, 탐구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로컬 생태여행 프로그램이다. ‘빛으로 그린 정원’, ‘감각으로 그린 정원’, ‘소리로 그린 정원’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먼저 ‘빛으로 그린 정원’은 지역 내 개방정원에서 진행되며 정원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식물카드와 루페(확대경)를 활용해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식물을 수집해 아날로그 감성 엽서를 만드는 특별한 체험도 진행된다.

‘감각으로 그린 정원’은 원예치료사와 함께하는 허브 원예테라피로 국가정원에서 진행된다. 향과 촉감을 통해 나에게 맞는 허브를 찾고, 직접 국가정원의 텃밭정원에 심어볼 수 있다. 참가자는 심은 허브를 가져가 정원과 나를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울길 정원에서 물소리와 새소리에 집중하며 오감으로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리로 그린 정원’으로 여행을 마무리한다.

해당 투어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등 공식 SNS채널에서 QR코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시행 보성군, 2년간 연 3% 이자 지원

전라남도 보성군은 경기 침체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원, 2년간 총 180만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원,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 후에는 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지참해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별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별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별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보성=양중수 기자